

##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에서의 자연가족계획 방법 수용 및 사용효과에 관한 연구\*\*

박 신 애\*

### I. 서 론

우리나라에 가족계획협회가 창립되고 1961년 가족계획 사업이 국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어온 지 30년이 경과되었다.

그간 정부와 민간단체의 선구자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인구증가율이 1960년 3.0%에서 1990년에는 1% 수준으로 둔화되었으며, 피임 및 소자녀 가족관 의식이 확립되어 인구학적 혁명을 일으킨 선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가족 계획 사업의 피임보급 전략이 개개인의 특성과 피임 원리의 정당성 여부를 고려하기 보다는 인구억제 효과가 큰 방법보급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도 대상자의 문화, 종교, 사회경제적 위치 및 교육수준 등에 적합한 방법을 보급토록 해야 한다는 것도 오늘날 국내의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소리이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1, Kimberly & Mary 1991).

말하자면, 정부나 특정단체가 한 두가지 피임방법만을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기 보다 가족계획을 원하는 부부가 여러가지 피임방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들에게 합당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지도하자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1960년대 이후 피임약이나 기구와 같은 소위 인공적 방법들의 부작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성의 생리주기와 신체변화

에 바탕을 둔 몇 가지 자연적 가족계획방법이 소개되고 이를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부부가 늘어 온 것은 띄우 의할 만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인구 기금이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지원하고 있고 국제가족계획 협회(IPPE)가 주기적 금욕법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고 WHO에서 자연적 가족계획 이용자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도 이런 일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John & Kamran 1991).

현재 전세계적으로 80개국 이상이 이들 자연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전국적인 보급단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 등 몇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와 실제 수요가 증가하는데 착안하여 이를 정부 프로그램에 넣기도 한 실정이다(맹광호 외 1985).

특히 인공적인 피임방법을 반대해 온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는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으로 부부가 한 달에 얼마간 채임과 절제를 바탕으로 주기적 금욕생활을 함으로써 부부애의 참 본질과 참 품위가 나타나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게 하는데 근본 뜻이 있는 것이다(교황바오로 6세 1968).

이에 본 연구자는 1960년 호주 빌링서 부부에 의해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71년 이래 가톨릭교회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자연적 가족계획 특히 점액관찰법 사업 내용 교육이수자의 특성 및 이 방법 사용자들에 의한 효과를 평가해 봄으로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 산학재단 연구 지원을 받은 연구임.

써 장차 우리나라에서의 자연적인 가족계획 방법 수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이 연구를 시도하였다. 구체적 목적은

첫째, 전개과정, 조직, 인력, 재정 및 교육전략 측면에서 사업현황을 파악한다.

둘째, 연도별, 교구별, 교육이수자와 특성을 파악한다.

셋째, 연도별, 교구별 활동효과를 파악한다.

- 1) 3주기 이상 사용자 빈도를 파악한다.
- 2) 사용자의 포기율과 이유를 파악한다.
- 3) 사용자의 피임 실패율과 이유를 파악한다.
- 4) 임신 성공율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한국 가톨릭 교회 전국 14개 교구 산하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 또는 병원 가족계획실에 개인별로 등록된 군과 집단교육에 참가한 군이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민학교 5학년 이상자와 중고등학교 학생 즉 청소년 177,818명과 대학생 4,242명, 수도자 및 사제 628명과 그의 일반 미혼자와 기혼자이며 총 424,714명이다.

### 2. 연구방법

한국 가톨릭교회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자연적 가족계획 활동에 대한 자료 중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1986년부터 1992년 10월까지 정기총회 및 워크샵 자료와 한국 가톨릭 중앙협의회 보고서 및 관계문헌을 본 연구자의 분석방법에 따라 분류 정리하였다. 의문 또는 보충사항은 연구자가 직접 관계직원을 방문 또는 전화하여 확인하였다.

통계자료는 연도별 교구별로 빈도 평균 및 백분율을 내었다.

## III. 연구 성적

### 1. 자연적 가족계획 사업 현황

#### 1) 전개과정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가족계획의 활동은 1970년 이전

까지는 재래식 주기법이나 체온법을 소극적으로 소개 또는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1970년 이후 천주교 춘천 교구장 박토마 주교가 자연적 가족계획의 지도와 계몽을 춘천교구 사목 정책의 하나로 정하고 직접 호주의 빌링스 박사를 만나 콜롬반 두 수녀를 단기 교육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빌링스 박사의 점액관찰법을 본격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다.

1972년 11월 한국 천주교의 주교회에서는 “인공유산과 피임”에 관해 토의하고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한 가족계획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가톨릭병원협회에 이를 연구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여 가톨릭병원협회에서는 1973년 2월 가톨릭병원협회 내에 행복한 가정연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선연적 의미 이상 조직화되지는 못했다(맹 1985). 주교회에서는 1974년 11월 비자연적 피임 방법의 무분별한 사용과 인공유산 시술에 대해 신자들에게 교회의 태도를 밝히었고, 1975년 5월부터는 카톨릭 여성연합회가 처음으로 자연적 가족계획지도자 훈련을 시작해서 200명 가까운 사람을 지도하고 각 본당을 순회강연했다.

같은 해 5월 28일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창립총회를 가졌고 서울 성모병원, 춘천 콜롬반의원, 목포 콜롬반 병원 및 대구 파티마 병원 등이 중심이 되어 자연가족계획 지도자 양성에 힘쓰기도 하였다. 1975년 말에는 국제가정생활 증진 협회에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하고 세계 보건기구가 새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한 자연적 가족 계획 연구 전문가 회의에 조규상 회장이 참가했다(맹광호 외, 1985).

1984년 주교회는 3월 20일-23일 정부당국이 불임수술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든 혜택을 자연적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베풀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였다.

1984년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전국 협의회는 발족 10주년을 기념하여 가톨릭 병원협회, 의사협회, 그리고 간호사회 공동주체로 빌링스박사 부부 등을 모시고 기념 세미나를 가졌다.

1991년 서강 대학교 내 생명 문화 연구소가 설립되어 인간 관련 전문 연구 기관으로 발족하였다. 1991년 12월 8일 인권주일에 한국주교단은 『인명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합시다』라는 사목 교서로 1항 인명의 존엄성에 대해 2항 죄로 인하여 어지러워진 하느님의 모습을 되찾은 구원된 인간의 품위에 대해, 생명권의 불가침성과 살인 행위인 낙태의 의미, 불임수술, 신체 일부의 절단 등 신체의 고의적 상해와 죄악, 경제 제일 주의가 가져

은 인명경시 풍조, 그리고 피임도구나 약물보다 절제를 요구하는 자연주기법 사용 등 13항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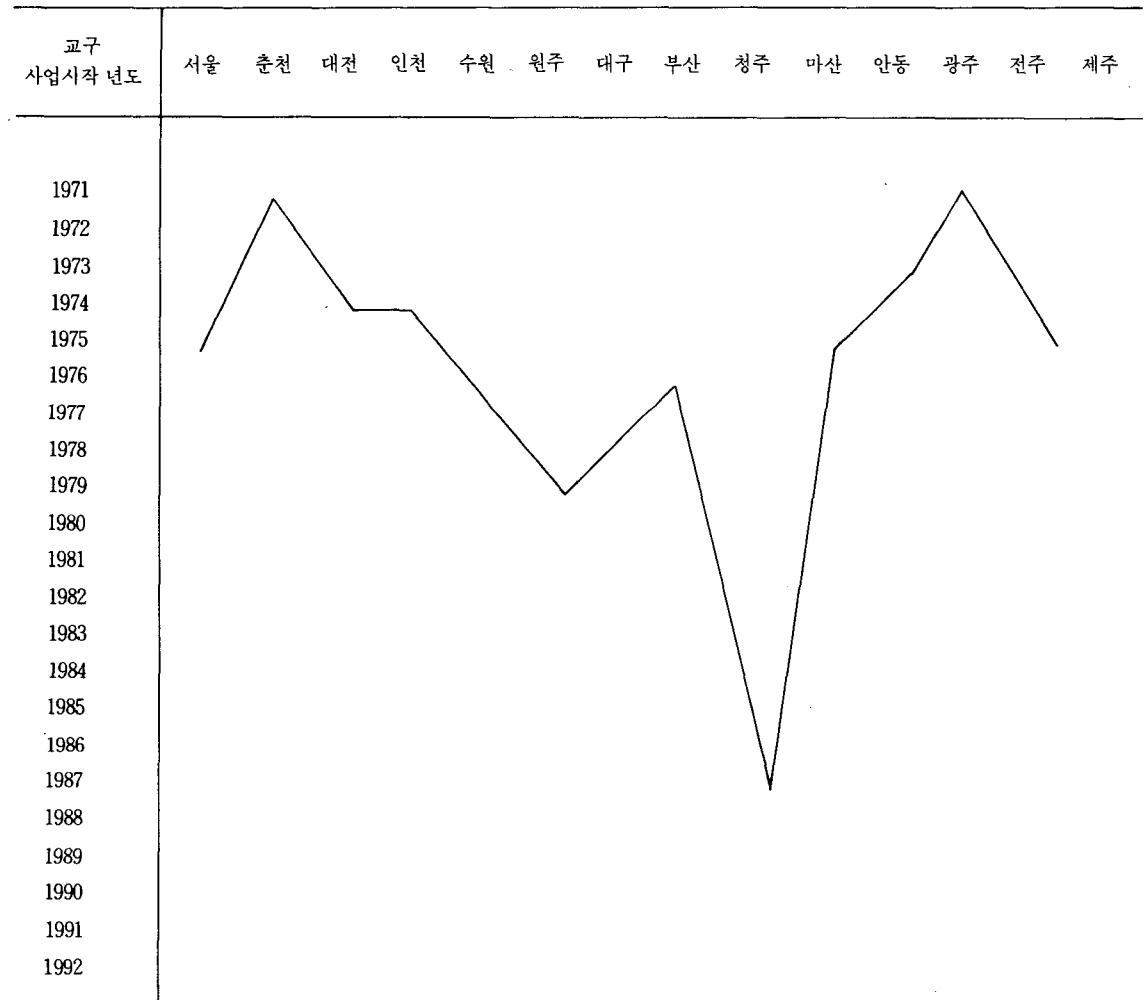
1992년 5월 제1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인명 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하자는 주교단 사목교서가 선언적 의미로 남지않고 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생명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연구와 보급 전략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가톨릭 교회와 생명운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송열섭, 1992).

교구별 전개과정은 <표 1-1>에서와 같이 최초로

1971년도에 춘천과 광주교구 산하 목포 성 콜롬바노 병원에서 시작되었다.

세번째 교구는 1974년에 대전과 인천 교구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1975년 서울교구에서도 가톨릭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자연 가족계획 클리닉을 열었고, 같은 해 마산, 대구, 전주 교구에서도 시작되었다. 1976년 수원 및 부산교구 순으로 하여 전국 14교구에서 모두 하나나 두 개의 클리닉을 열고 자연적 가족계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표 1-1> 교구별 상담실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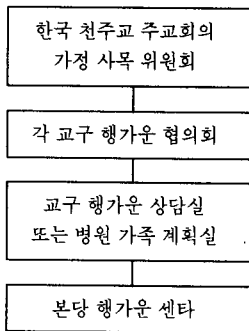
2) 조직

자연가족계획 활동을 위한 조직으로는 1975년 5월 28일 한국천주교 주교회 산하에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이 창립총회를 갖고 그 해 8월 세미나 겸 제1차 총회를 거쳐 전국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주교회의 직속 가정사목위원회 박도마주교를 담당 주교로 선정하고 사무국은 가톨릭 병원협회에 두었다. 그리고 각 교구에는 교구지도 신부와 가족계획실 또는 행복한 가정 상담실 전임지도원을 중심으로 교구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하였다.

1977년 가톨릭 병원협회내에 있던 전국협의회 사무국을 가톨릭의과대학으로 옮기고 전임 사무장을 두었다. 1979년 광주 교구에서는 교구내 행복한 가정운동 발전을 위해 교구를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도 신부를 임명하고 도시분당에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여 조직을 체계화하고 활동을 활성화하였다.

국제조직인 국제 가정 생활증진협회나 세계 배란법기구, 국제인간 생명협회 및 WHO 등 국제단체들과 긴밀한 정보교환 하에 관계를 갖고 있다.

1992년 제17차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그림 1>과 같이 조직의 명칭과 활동을 재정의하고 재편성하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국 협의회는 전국 협력 위원회로 개칭되고 협력위원회 사무국은 가톨릭 중앙협의회 가정사목위원회에 두고있다. 교구협의회는 그대로 협의회라 칭하고 본당단위로 본당 봉사자를 중심으로 행가 운동센터 또는 행가운동 동아리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행복한 가정운동 활동 조직

3) 인력 분포

전국협력위원회는 14개교구의 행복한 가정 운동 지도

신부들로 구성되어 매년 서울에서 총회를 갖고 활동에 관한 토의를 해왔다. 전국협의회에는 회장과 사무총장에 전임사무장이 있었으나 전임사무장 제도는 1989년에 폐지되었다.

1992년 전국협력위원회는 주교회의 산하 가정사목위원회에 소속되었으며, 이 위원회 담당주교를 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교구지도 신부 각교구 위원회 병원대표 2인, 그리고 분과위원으로는 신학 의학 등에서 선임하여 재구성하였다.

교구별로는 서울대 교구는 교구청 사목국 지도 신부와 3개 병원에 전임지도원 각 1인을 두고 두 병원에는 행정요원 1인을 더 배치하여 가족계획상담실을 운영하고 이들이 병원 내의 행가운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구청 상담실은 병원 소속지도원이 주 2회 출장형식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춘천 교구는 교구장을 중심으로 병원장, 수녀, 그리고 지도원 1인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고 본당마다 봉사자를 배출하여 본당 행가 운동 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가족단위 및 개인단위 회원들의 월레모임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인천 교구는 성서 국장을 지도신부로 하여 교구청 산하 조직으로 행복한 가정운동 위원회가 교구 상임위원 4인, 지역 대표 8인, 그리고 전임 지도원으로 구성하였다. 타교구에 비해 포괄적으로 조직되어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생명수호 세미나 등을 논의하고 있었다.

대구 교구는 교구청 사목국 소속 지도 신부와 병원내 전임직원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행가운 동아리”란 명칭 하에 자원 봉사자들의 모임이 있어 생명수호미사를 봉헌하며 가족계획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다.

대전 교구도 지도 신부 1인과 상담실 전임직원 2인이 상담활동을 전담하고 있었고, 교구 차원의 협의회의 조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

상담 및 교육활동 제공자는 <표 1-3>에서와 같이 전체 30명 중 간호사 자격 소지자는 서울 교구에 3인, 청주 및 대구교구에 각 1인으로 모두 5인이었다. 전임직원 채용상태는 서울교구(3명 교육담당 2명 사무담당)와 부산교구에서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춘천과 광주 교구가 4명이고, 대전, 마산, 대구 교구가 각 2명이었고, 그 외는 각 1명이었다.

봉사자 활용상태는 모두 520명으로 그 중 춘천이 4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이 마산 교구 25명, 청주교구 24명 순으로 봉사자 활용의 폭이 컸다.

〈표 1-3〉 1992년 교구별 상담 및 교육제공자의 특성

교구별 특성	서울	춘천	인천	수원	대전	청주	원주	광주	전주	마산	부산	안동	제주	대구	계
간호사자격															
유	3	-	-			1		-	-	-	-	-		1	5
무	2	4	1	1	2	-	1	4	1	2	5	-	1	1	25
채용상태															
전임	5	4	1	1	2	1	1	4	1	2	5	0	1	2	30
봉사자	11	400	18	2	2	24	0	0	1	25	5	10	2	20	520

4) 교육 전략

1976년 전국 협의회가 마련한 배란법 책자와 박토마 주교가 집필한 영성교재가 배부되었다. 1977년 격월간의 월보를 발간하고 교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 1978년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1차 성직자를 위한 가정사목 세미나에 60여 명의 신부와 수녀가 참가하였다. 이어 1979년 2차 1981년 3차 등 성직자 가정사목 세미나가 개최되어 1985년까지 약 400명 참가했다(맹광호의 1985). 1978년 각 교구에 '인공유산과 여자결정권', 그리고 생명의 신비 등 두편의 영화를 번역, 배포하여 자연 가족계획 지도에 활용토록 했다. 1980년 세계 배란법 기구의 가입국으로 승인받았고, 그해 국제 행복한 가정운동 회의에 한국 대표가 참가하였다. 1981년 점액관찰법을 좀더 쉽게 알기 위한 "점액관찰법"이란 사용자 안내 책자를 발간하였다.

마리아 수녀회가 침묵의 절규, 이성의 소멸, 냉혹한 진실과 점액 관찰법 등 4편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인공유산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깨닫도록 하고 각 교구 및 전국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곳에 배부되었다. 1992년 4월 청소년 순결교육용 생명을 위한 사랑 1만부가 발간 배포되었다. 1992년 낙태 반대 성명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매월 낙태아를 위한 월레미사를 봉헌하는 교구 및 성당이 있다.

교구별 상담 및 교육전략은 〈표 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7차 총회 및 워크숍을 진행해오는 동안 교구별로 창의적으로 개발되고 모방되어 교구별 별차이가 없었다.

• 청소년 교육은 성교육(순결교육)이란 명칭하에 각 교구별로 실시되고 있었다.

• 대학생 교육은 서울 교구에서는 가톨릭 의대 및 일

개 간호학과 학생 교육이 보고되고 있었고, 그의 교수 재량에 따라 강의되거나 학생서클활동을 통해서 전개되는 사항은 보고되지 않고 있었다.

• 가 나 혼인 강좌는 각 교구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 Marriage Encounter Program은 원주교구에서만 86년부터 92년 현재까지 계속 연계성을 갖고 교육을 실시하였고 인천교구에서 89년도에 한번 그의 교구에서는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 견진 교리 프로그램은 86년부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그리고 청주 등에서 관계를 가졌으나 지속적이지 않게 나타났다.

그외 병원 이용자 및 직원을 통한 산모교육, 직원교육,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 교실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성교육, 성가정 피정, 수도자 사제 세미나, 상담실 내소(기혼 및 미혼)자 상담, 전화 상담, 가정 방문이었다. 그밖의 활동은 지도원 소속이 교구나 또는 의료기관이나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1-2〉. 상담 및 교육 전략

1. 청소년 성교육
2. 대학생 교육
3. 가 나 혼인 강좌
4. ME교육 프로그램
5. 견진자 예비교육
6. 산모교육
7. 어머니 교실
8. 직원 연수
9. 지도자 성교육
10. 수도자 사제 세미나
11. 성가정 피정
12. 야학, 위탁모 등 특수시설 이용자

- 13. 선택주말
- 14. 전화상담
- 15. 가정 방문
- 16. 크리닉 내소, 미혼자 상담
- 17. 크리닉 내소, 기혼자 상담

5) 재정

1975-1984년 위원장 박토마 주교는 교구 및 전국 차원에서 모금하여 할당하였고 1985년 부터는 교구설립 200주년 기념 결산잔여금 5억을 사목 기금으로 할당 받아 행사 운동 활성화에 투자하여 홍보 활동 지도자 양성 및 part time 활동을 시도했다.

현재 각 교구별로는 직원 봉급이외는 거의 비예산으

로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2. 교육이수자의 특성

총 교육이수자는 학생, 사제, 그외 일반 미혼자 및 기혼자들을 합하여 년도별로 약 45,000명에서 93,000명으로 6년간 총 425,000명이었고, 매년 평균 7만명이 자연적인 가족계획방법을 교육받았다.

교구별로 가장 많은 대상을 교육한 교구는 부산 교구에서 평균 약 12,000명이었고, 다음이 서울교구 9,000명순이었다. 교육이수자의 특성을 기혼자와 미혼자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986년도와 1987년도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 2-1>과 같다.

<표 2-1> 연도별 교구별 교육이수자 수

교 구																
연도	이수자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전주	제주	계
1986	기혼자	3553	3391	3706	2389	990	510	984	2541	283	2056	233	4094	516	15	25352
	미혼자	5495	3680	9147	1758	3657	1539	1145	5329	492	2640	106	8529	1596	103	4531
	계	9047	7072	12853	4147	4737	2049	2129	7870	775	4696	439	12623	2112	118	70667
1987	기혼자	5392	2858	1780	1941	1335	2754	979	8904	1207	1371	57	1238	3463	438	33918
	미혼자	3670	3279	17855	29448	1947	2019	1355	5245	682	3711	252	2587	8465	141	54182
	계	9062	6137	19643	4885	3302	4773	2334	14149	1889	5082	309	3825	11930	579	88100
1988	교육자수	9386	7730	14595	5077	4317	1876	4090	17156	1564	4312	776	1609	6700	771	79959
1989	-	9173	7581	16666	5576	8343	4263	1613	17137	3589	4778	718	3824	7959	886	9106
1990	-	8041	4303	15394	2581	4085	2623	-	-	1786	2588	-	3289	-	-	44690
1991	-	9050	3052	5644	3298	2278	593	4964	11936	2889	1237	685	1150	1187	1229	49192
계	계	53759	35875	84797	25564	27062	16177	15130	68247	12492	22633	2927	26320	29888	3583	424714
	평균	8960	5980	14133	4261	4511	2697	2522	11375	2082	3773	585	4387	5978	717	70768

청소년 및 대학생 교육이수자는 <표 2-2>에서와 같이 6년간 총 약 18만이었다. 연도별로 약 25,000명에서 약 5만명으로 매년 평균 약 3만명이었다.

교구별로 약 25,000명에서 약 100명 이하부터 16,000명으로 범위가 넓으며, 상담실 단위로 보면 대전교구에서 가장 많이하였다.

대학생 교육자수는 6년간 총 약 4,300명이었다. 대학생 교육이 단 한번이라도 이루어진 교구는 7개 교구로 50%였다.

교구별로 대학생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교구는 마산교구였으나 1회로 그쳤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교

구는 서울대교구였다.

교육이수자 중 지도를 목적으로 이수한 수도자와 사제 및 평신도 지도원은 <표 2-3>에서와 같다. 수도자와 사제는 1986년부터 총 1991년까지 전교구에서 약 600명이었다. 인천교구와 춘천교구에서는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타 교구에서는 거의 이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신도 지도원 양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교구도 인천교구와 춘천교구이며 그외는 교구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2-2〉 연도별 교구별 청소년 및 대학생 교육이수자

연도	교 구	서울	춘천	대구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전주	제주	계
1986	청소년 및 대학생	-	-	33123	1400	1105	1583	1176	-	-	2559	-	6460	1129	-	48,535
	대학생	78	-	-	-	-	-	-	-	-	-	-	-	-	-	-
1987	청소년 및 대학생	3461	500	15774	-	905	1688	-	-	481	3294	-	2100	1294	20	29,562
	대학생	154	-	-	900	-	-	-	-	-	-	40	-	-	-	1,094
1988	청소년 및 대학생	1667	-	12820	-	660	5694	2130	-	496	223	40	587	750	-	25,067
	대학생	189	-	-	-	-	-	-	-	-	-	-	-	-	-	189
1989	청소년 및 대학생	2425	-	14812	850	1847	1448	-	-	-	101	21	2717	1540	-	25,751
	대학생	148	-	-	-	-	-	-	-	-	-	28	-	-	-	176
1990	청소년 및 대학생	2360	4160	14039	420	3190	498	-	-	914	129	-	1365	1646	-	28,721
	대학생	217	-	35	-	-	26	-	-	-	2101	-	50	-	-	2,429
1991	청소년 및 대학생	2158	2302	4332	1160	778	431	-	7530	1707	952	467	1075	560	880	24,332
	대학생	276	-	-	-	-	-	-	-	-	-	-	-	-	-	276
계	청소년 및 대학생	12071	6962	94900	3830	8530	11342	3306	7530	3598	7258	528	13034	5273	900	177818
	대학생	1062	-	35	900	-	26	-	-	-	2101	68	50	-	-	4242
평균	청소년 및 대학생	2012	1161	15817	638	1421	1890.3	551	1255	599.7	1209.7	88	2172.3	878.8	150	303307
	대학생	177	-	5.8	150	-	4.3	-	-	-	350.2	11.3	8.3	-	-	707

〈표 2-3〉 연도별 교구별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교육이수자

연도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교 구										계				
		서울	춘천	대구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미산		인동	광주	전주	제주
1986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600	43	-	37	90	-	-	-	-	-	-	-	-	-	170
1987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	50	-	56	40	-	-	-	-	-	-	-	-	-	146
1988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	-	18	64	-	-	-	-	-	-	-	-	-	30	112
1989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	23	-	40	43	-	-	-	-	-	-	-	-	-	40
1990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	-	20	45	-	77	-	-	-	-	-	-	53	-	118
1991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170	30	-	86	-	510	-	1회	-	-	-	-	-	-	712
계	수도자 및 사제와 평신도 지도원	770	123	20	264	130	768	43	2회	1회	-	-	-	53	-	628*
	평신도 지도원		2	51		43									36	1872

\* 1회



### 3. 활동 효과

#### 1) 등록자중 3주기 이상 사용자율

등록자 중 3주기 이상 사용자는 <표 3-1>과 같다. 등록자 총 39,879명 중 3주기 이상 상태를 확실히 파악한 사용자는 61.5%(24,542명) 이었다.

사용율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대상을 감안하면 실제 3주기 이상 사용자는 70%는 되리라고 사료된다. 연도별로는 사용자가 48.1%~78.2%로 나타나 많고 적은 분포가 반복되었다. 교구별로는 사용자 분포가 28.0%~98.2%로 교구별 차이가 컸다.

#### 2) 점액관찰법 사용포기율과 그 이유

점액 관찰법 사용 포기자는 <표 3-2>에서와 같이 1986년도 총 등록자 8,129명 중 22.7%(1,845명)였다. 포기이유는 23.4%(431명)은 임신을 위해서 30.1%(555명)은 방법의 어려움, 16.6%(307명)은 흥미를 잃음으로 나타났다. 1987년에는 총 등록자 12,558명 중 7.0%(876명)가 사용을 포기하여 1986년도에 비해 포기율이 훨씬 낮았다.

중단이유는 22.5%(199명)은 임신을 위해서 25.8%(229명)은 방법의 어려움, 그리고 22.8%(202명)은 흥미를 잃음으로 나타났다.

1988년 이후는 보고서에 자료가 기록되지 않아 분류하지 못하였다. 교구별로는 0.5%~45.3%로 교구별 포

기율의 차이가 컸다.

#### 3) 피임실패율과 그 이유

피임실패율은 <표 3-3>에서와 같이 6년간 총사용자 27,542명 중 평균 2.9%(701명)이었다. 연도별로는 1.2%~9.8%의 큰 차이를 보였으나 1986-1989년도에 이르는 큰 변화는 실패율이 가장 낮은 1987년도를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교구별로는 0.1%~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실패 원인이 보고된 1986년도 자료에 의하면 총 203명의 피임 실패자 중 개인적 실수가 124명 61.1%로 가장 많았고, 이유불명이 19.7%, 그 다음이 방법을 이해 못함이 19.2% 순이었다.

1987년 총 118명의 피임 실패 원인으로서 개인 실수가 6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방법을 이해 못함이 26.3% 순이었다. 이와 같이 실패 원인은 평균적으로 개인적 실수가 가장 많고 다음이 방법의 어려움이었다.

#### 4) 임신 성공율

임신 성공율은 <표 3-4>에서와 같이 1988-1989년 2년간 총 2,979명 중 18.1%(530명)이고, 1988년도에 비해 1989년에 성공율이 낮았다. 교구별로는 광주교구에서 52.8%(9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청주교구가 37.1%(10명), 대전교구가 36.8%(38명) 순이었다.

〈표 3-1〉 등록자중 3주기 이상 기록사용율

연도	인도	교 구		사용		출친		대진		인척		수원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광주		전주		제주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986	사용자	181	60.3	1009	71.7	188	49.3	187	86.6	154	55.6	152	88.4	101	22	1235	98.5	130	86.7	104	63.4	48	52.2	890	29.2	194	91.9	-	-	4573	56.3		
	모름	47	15.7	196	13.9	143	37.5	12	5.6	103	38.3	11	6.4	235	51.2	235	0.9	0	0	46	28.0	12	13.0	858	28.2	4	1.9	-	-	1679	20.9		
	중단자	27	24.0	202	14.4	50	13.2	5	7.8	14	6.1	5	5.2	118	26.8	118	0.6	20	13.3	14	8.6	32	34.8	1298	42.6	12	6.2	-	-	1849	22.7		
	합계	300		1407		381		216		277		172		459		459		150		164		92		3046		211		-		8129			
1987	사용자	262	48.8	854	66.6	107	41.2	160	71.4	159	58.9	236	89.4	264	58.9	4972	99.3	144	46.9	192	72.7	49	33.1	1989	64.7	374	94.7	63	82.9	9825	78.2		
	모름	147	27.4	198	15.4	106	40.8	34	15.2	100	37.0	19	7.2	105	23.4	10	0.2	24	7.8	51	19.3	84	56.8	943	30.7	4	1.0	3	3.9	1828	14.8		
	중단자	123	23.8	230	18.0	45	18.0	25	13.4	8	4.1	6	3.4	78	17.7	25	0.5	137	45.3	15	8.0	13	8.8	144	4.7	17	4.3	10	13.2	876	7.0		
	합계	537		1282		260		224		270		264		448		5007		307		264		148		3076		395		76		12558			
1988	사용자	299	57.9	700	36.2	88	48.1	226	60.3	96	42.1	212	83.5	81	16.9	266	86.9	100	42.4	356	79.6	215	52.7	1066	39.5	254	20.4	110	100	4069	48.1		
	합계	516		1934		183		375		228		254		478		306		236		447		408		2698		281		110		8454			
1989	사용자	207	55.5	834	58.6	121	52.2	138	48.3	95	41.3	140	76.1	6	4.5	348	91.8	58	75.3	377	73.1	131	32.6	1757	50.2	242	83.4	-	-	4454	56.6		
	합계	373		1422		232		286		230		184		134		379		77		516		249		3501		290		-		7873			
1990	사용자	-	-	920	52.6	-	-	-	-	112	58.9	-	-	-	-	-	-	-	-	-	-	-	-	-	-	-	-	-	-	-	-	1032	53.2
1991	사용자	-	-	470	62.6	-	-	-	-	-	-	119	70.4	-	-	-	-	-	-	-	-	-	-	-	-	-	-	-	-	-	-	-	1940
총 계	사용자	949	54.9	4787	55.9	504	47.7	711	64.6	711	51.5	859	82.4	452	29.8	6821	98.2	432	73.9	1029	73.9	443	49.4	5702	46.3	1064	90.4	173	93.0	24542	61.5		
	합계	1726		8551		1056		1101		1101		1043		1519		6946		770		1391		897		12321		1177		186		39879			

〈표 3-2〉 1986-1987년 등록자 중 사용표기율과 그 이유

연도	교 구	서울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원주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		평주		진주		세주		계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N	%
1986	연도표기자 및 이유	72	60.3	202	14.4	50	13.2	5	7.8	5	5.2	5	5.2	118	26.8	7	0.6	20	13.3	14	6.1	52	34.8	12	6.2	1298	42.6	-	-	1849	22.7
	포기자	300		1407		381		216		277		172		459		1254		150		164		92		211		3046		-	-	8129	
	임신을 원해서	29	40.3	58	28.7	35	28.7	1	20.0	0	0	3	60.0	13	11.0	0	0	3	15.0	1	7.1	0	0	8	66.7	280	21.6	-	-	431	23.4
	방법의 어려움	36	50.0	75	37.1	14	37.1	0	0	12	85.7	1	20.0	35	29.7	4	57.1	6	30.0	3	21.4	25	78.1	4	33.3	340	26.2	-	-	555	30.1
	혼미를 원함	0	0	15	7.4	1	7.4	3	60.0	0	0	0	0	15	12.7	3	43.9	0	0	10	71.5	7	21.9	0	0	253	19.5	-	-	307	16.6
기타	5	9.7	54	26.8	0	26.8	1	20.0	2	14.3	1	20.0	55	46.6	0	0	9	55.0	0	0	0	0	0	0	425	32.7	-	-	552	29.9	
1987	연도표기자 및 이유	123	23.8	230	18.0	45	18.0	25	13.4	8	4.1	6	3.4	78	17.7	25	0.5	137	45.3	15	8.0	13	8.8	17	4.3	144	4.7	10	13.2	876	7.0
	포기자	537		1282		260		224		270		264		448		5007		307		264		148		395		264		76		12558	
	임신을 원해서	26	21.1	85	35.4	12	26.7	6	24.0	6	75.0	5	83.3	1	1.3	6	24.0	17	12.4	0	0	2	15.4	2	11.8	31	21.5	0	0	199	22.5
	방법의 어려움	29	23.6	43	17.9	9	20.0	3	12.0	0	0	1	17.7	62	79.5	6	24.0	11	8.0	0	0	9	69.2	2	11.8	51	35.4	3	30.0	229	25.8
	혼미를 원함	43	34.9	23	9.6	9	20.0	13	52.0	0	0	0	0	10	12.8	13	52.0	28	20.4	11	73.3	0	0	9	52.9	41	28.5	2	20.0	202	22.8
기타	25	20.4	79	37.1	15	33.3	3	12.0	2	25.0	0	0	5	6.4	0	0	81	59.2	4	26.7	2	15.4	4	23.5	21	14.6	5	50.0	256	28.9	

〈표 3-3〉 사용자중 피임실패율과 그 이유

연도	교구	사울 N %	출천 N %	대전 N %	인천 N %	수원 N %	원주 N %	대구 N %	부산 N %	창주 N %	마산 N %	인동 N %	광주 N %	전주 N %	제주 N %	계		
																N	%	
1986	수딧을	4 181	67 1009	4 188	4 187	6 154	4 152	5 101	0 1235	0 130	0 104	11 48	96 890	1 194	0.5	-	203 4573	4.4
	이유																	
	임신을원해서	0	13	4	1	0	1	3	3	0	0	0	3	14	0	0	39	19.2
1987	수딧을	5 62	15 854	2 107	5 160	2 159	3 236	1 264	2 4972	2 144	6 192	2 49	37 1989	0 374	0 63	0 0	118 9825	1.2
	이유																	
	임신을원해서	2	40	1	2	0	1	3	0	0	0	0	10	0	0	0	31	26.3
1988	수딧을	3 299	65 700	1 88	6 226	-	2 212	0.9	8 266	3 100	12 356	2 215	23 1066	0 254	0 110	3 27	128 4069	3.1
	이유																	
	임신을원해서	2	40	1	2	0	1	3	0	0	0	0	10	0	0	0	31	26.3
1989	수딧을	6 207	60 834	-	3 138	1 95	3 140	2.1	0 348	4 58	6 377	5 131	42 1757	2 242	0.8	-	133 4454	3.0
	이유																	
	임신을원해서	2	40	1	2	0	1	3	0	0	0	0	10	0	0	0	31	26.3
1990	수딧을	-	60 920	-	-	1 112	-	-	-	-	-	-	-	-	-	-	61 1032	5.9
	이유																	
	임신을원해서	2	40	1	2	0	1	3	0	0	0	0	10	0	0	0	31	26.3
1991	수딧을	-	39 470	-	-	-	19 119	16.0	-	-	-	-	-	-	-	-	58 589	9.8
	이유																	
	임신을원해서	2	40	1	2	0	1	3	0	0	0	0	10	0	0	0	31	26.3
평 균 (%)	1.9	7.1	1.4	2.5	1.6	1.4	1.5	0.1	2.1	2.4	4.5	3.5	0.3	1.7	701 24542	2.9		

〈표 3-4〉 임신을 목적으로 배운 사람 중 성공율

연도	교구	사울 N %	출천 N %	대전 N %	인천 N %	수원 N %	원주 N %	대구 N %	부산 N %	창주 N %	마산 N %	인동 N %	광주 N %	전주 N %	제주 N %	계		
																N	%	
1986	수딧을	44 448	47 145	18 37	23 102	12 101	3 11	9 77	13 49	5 14	8 44	6 20	38 62	3 12	2 10	231 1132	20.4	
	이유																	
	임신을원해서	50	60	20	20	5	4	8	32	5	5	19	2	61	2	3	291	15.8
평 균 (%)	10.4	35.8	36.8	22.0	9.5	27.9	11.8	11.8	11.8	37.1	24.2	22.7	52.8	25.0	40.0	18.1		

## IV. 고 찰

### 1. 자연적 가족계획 사업 현황

한국 가톨릭교회의 자연적 가족계획 활동은 1970년 이후 춘천교구장 박토마 주교가 자연적 가족계획의 지도와 계몽을 춘천교구 사무 정책의 하나로 정하고 직접 호주의 빌링스 박사를 만나 콜롬반 두 수녀를 단기 교육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빌링스 박사의 점액 관찰법을 본격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다(맹광호 외, 1985).

1972년 천주교의 주교회에서 인공유산과 피임에 관해 토의하고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에 이를 연구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5년 행복한 가정운동이 창립되었고, 그해 8월 세미나겸 제1차 총회가 개최되었다. 1975년 말에 국제 가정생활 증진협회에 정식 회원단체로 가입하였다.

1991년 12월 인권주일에 “인명존중의 새 문화를 창조합시다”라는 사목교서 13항을 발표하고 1992년 5월 가톨릭 교회와 생명 운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연구와 보급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되어 왔다(송열섭, 1992).

교구별 자연적 가족계획 활동은 1971년도에 춘천과 광주교구 산하 콜롬반 병원에서 시작되었고, 1974년 대전과 인천교구 순으로 전국 14개 교구에서 모두 전개되고 있다.

1992년 제17차 총회를 갖고 조직의 명칭과 내용을 재편성하여 보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협력위원회로 교구 협의회는 그대로 협의회로 칭하고, 본당 단위로 본당 평가운동 센터를 운영하고 가족단위로 가족단위 정회원과 개인 단위 준회원제를 두고 있다.

전국협력 위원회는 예산 및 전임사무장이 없이 년1회 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교구별 지도원이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스스로 지역별로 2개월에 한번씩 지역을 순회하며 활동상의 어려움과 방법상의 문제를 토의하고 활동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교구협의회는 인천교구와 춘천교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구 지도 신부님과 한 두명의 전임 지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상담 및 교육자는 30명 중 5명이 간호사였다. 상담 및 교육전략은 배란법 책자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하여 청소년 및 대학생, 근로자, 시설에 수용된 자, 교회내 건진 ME 등 각종 프로그램과 유대를 갖고 집단교육을 하

고 내소자 상담, 전화상담 및 가정방문 등으로 개별 지도를 하고 있었다. 재정상태는 현재 교구별로는 직원 봉급의 거의 비예산 활동이었다. 활동이 선언적 의미로 남지 않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 교회내 새로이 부각되는 생명운동과 함께 행가운동이 그 중요성을 잃지 않고 더욱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 나가야겠다. 따라서 자연적 가족계획 활동이 신자 및 비신자에게 더 수용되고 타종파, 타단체 및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미쳐 온 국민이 자연적 피임방법을 다 안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삶의 질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로 사제 및 수도자의 관심과 배려가 요망되고 적극적인 봉사자 활용과 아울러 전임지도원 스스로 사명과 책임감, 그리고 높은 긍지가 요구되며 또한 더욱 격려되어야겠다.

### 2. 교육 이수자의 특성

학생, 수도자 및 사제, 그리고 평신도 지도원 그외 미혼 및 기혼자를 합친 총 교육 이수자는 연도별로 작게는 24,000명 많게는 87,000명으로 6년간 평균 7만명이었다. 간접적으로 교육되는 이수자를 감안하면 훨씬 많으리라 생각된다. 교구별 및 지도원 1인당 교육한 이수자수는 춘천교구와 인천교구에서 가장 많았다.

수도자 사제 교육이수자는 1986-1991년 6년간 총 628명 이었고 인천교구와 춘천교구에서만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구 및 본당활동 상태에 사제 및 수도자의 관심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제 및 수도자의 관심이 요망된다.

평신도 지도원 양성 상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관리되는 교구는 인천과 춘천교구 뿐이었다. 자연적 가족계획 활동의 보급과 생활화를 위해 비전임 평신도의 활용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청소년 교육이수자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간 총 18만으로 매년 평균 3만명이었다. 연도별 대상자의 증가도 없고 규칙성도 없었다. 교구별 차이가 컸다. 이는 6년간 전국 고등학생 총 수 2천9백만에 비해 0.6%(175,000)에 불과하였다(교육부 1992). 더욱 대학생 교육이수자는 6년간 총 4,200명으로 전국 전문대 이상 대학생 인구 8백만명에 대해 0.05%(4,300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교육기관이 스스로 교육을 요청한 경우와 지도원의 제의에 의한 수였다. 미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교육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가톨릭

계 교육기관부터 솔선하도록 적극 건의 또는 유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 3. 활동 효과

#### 1) 등록자 중 3주기 이상 사용자 수와 율

등록자 중 3주기 이상 사용자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평균 61.5(24,542명)이었다. 연도별 교구별 차이가 컸다.

Kamis(1989)이 1983-1988 사이 아프리카 지역의 자연적 가족계획 서비스를 검토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리베리아에서는 10군데 지역에서 3명의 감독자와 66명의 지도원에 의해 1,492명이 등록되어 40.8%(608명)가 자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1년 동안 79.5% 지속하였다. 잠비아에서는 90군데 지역에서 5,000명 이상이 등록하였고, 2,500명이 피임을 위해 사용하고 700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속율은 69.5%였다.

Mart, et al.(1989)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펜실베니아주 St. Joseph 병원에서 실시하는 NFP 프로그램에서 428명이 피임을 위하여 교육 받은 후 29.7%가 자연스럽게 사용한 후 12개월 후 지속율이 60.8%였고, 인도양 Mauritius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한 후 12개월 후 지속율은 76.3%였다. 두 나라에서 NFP를 중지하는 흔한 이유는 계획적 임신을 하기 위함이고, 터울임신보다 영구임신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본 연구자료는 3주기 이상 사용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3주기 이상 사용하면 보통 자율성(autonomous)이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Kamlo(1989) 40.8%, Mant et al(1989) 29.7%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위 두 연구자의 1년간 지속률과의 비교는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자율성(autonomans)이 생겼을 때의 사용률과 1년 이상 지속률 또는 pearl rate를 파악해서 NFP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대상자들의 NFP 이용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지속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NFP사업의 홍보를 극대화시키고 계속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에 반영시켜야 한다. 또한 NFP 사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대상자란 단순하고 평범한 관계를 넘어 인간적 가정적 및 국가적 견지에서 선구자란 인식에서 특별한 관심과 친절 및 배려를 기울여야겠다.

#### 2) 점액 관찰법 포기율과 그 이유

점액 관찰법 사용등록자 중 포기율은 1986년도 평균

22.7%(1845명) 이었고, 포기이유는 23.4%(431명)는 임신을 위해서 30.1%(555명)는 방법의 어려움 16.6%(307명)는 흥미를 잃어서였다. 1987년도 포기율은 7.0%(876명)으로 1986년도에 비해 낮았으며, 포기이유는 유사했다.

Fragstin et al.(1988)는 464명의 영국 여성 중 19.8%(92명)가 사용을 포기했으며, 그 이유는 42.4%(39명)는 임신때문이었다고, 17.4%(16명)는 배란과약의 어려움, 그리고 12.9%(10명)는 기록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 인용한 Tolan et al.의 연구에서는 16%가 금욕이 비교적 쉬운 문제인 반면에 84%가 금욕이 비교적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Gomls et al.(1988)의 연구에 의하면 416명 방글라데쉬 여성이 12개월 내 포기한 경우는 2.4%(10명)이었다.

Trussell et al.(1991)이 WHO에서 5개국(뉴질랜드, 인도, 아일랜드, 필리핀, 엘살발도르 등)에서 연구한 자료를 재분석하였는데, 배란법 프로그램 등록자 중 83.4%(725명)가 1년간 지속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임신을 원해서. 방법에 대한 불만족으로 중지를 하였다. 따라서 포기율은 16.6%에 해당한다. 맹광호의(1989) 한국에서의 지속율은 67%였고 따라서 포기율은 23%였다.

Both-Jungquth, et al.(1989)이 NFP 교육효과 분석을 위한 test chart 평가결과, 잘못 해석된 비율이 1983/84 집단이 1986/87 집단에 비해 16.4%로 연도별로 잘못 해석된 test chart 비율이 감소했다고 했고 NFP교육과 훈련에 대한 표준화 구조화가 요구된다고 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방법의 이해도 및 이유 불명 순이었다.

Frater(1989)는 자연적 가족계획 사용을 포기하는데 영향이 미치는 요인은 부부가 가족계획을 함께 해야한다는 책임감과 금욕의 어려움이라고 언급하였고, Gupta, et al.(1989)는 자연적 가족계획 사용을 포기한 이유는 임신목적, 피임실패, 실패의 두려움, 그리고 사용 불편이라고 보고해 피임실패나 사용불편은 방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Pere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칠레의 900부부 중 총 5,740주기에서 13.7%(9124명)가 임신했다. 임신 원인은 계획된 임신이 42%(52명), 사용자 실패 46%(57명), 교육실패 2.4%(3명), 그리고 잘못된 0.8%(1명)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은 8%에

해당하였다.

Perz et al.(1988)의 연구에서는 칠레의 분만여성 중 378명이 총 4,935주기 기간인 2.4%(9명), 관찰 중 원치 않는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인으로는 모유 수유와 배란기법을 제시했다.

Kambic et al.(1989)는 1983-1988까지 리베리아에서 10군데 1,192명 등록자 중 1,055명 피임을 원하는 자였고, 사용기간 1년 동안에 4.2%의 실패율을 나타냈고, 잠비아는 90군데에서 실패율은 10.4%였다.

St.Mart. et al.(1989)와 Gray R. et al.(1989)의 미국 펜실바니아주 성 요셉 병원에서 실시하는 NFP 프로그램에서는 12.2% 인도양상의 Mauritus에서 (1984-85)사용자 2,308명 중 무작위로 507명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에서는 실패율이 6.1%였다. 또한 두 나라에서 여성들이 터울 임신보다 영구피임에 NFP를 자율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많았었다. 영국 옥스포드에서 국가적 가족계획 교육을 위한 사전 연구에서는 72명 여성의 903주기 중 실패율 2.7%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외국연구에서 피임실패율은 WHO조사로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쓰지 못했을 때의 86.4%와 Frastein(1988)의 38.6%를 제외하고는 1.4%-6.1%였다. 우리나라 조사결과 교구별 0.1%-7.1%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피임 실패의 원인은 이와 같이 첫째는 사용자 실패가 가장 많았고 사용자 실패로는 금욕의 어려움 및 금욕에 대한 부부의 협조성 결혼 기간이 짧은 경우 부부간의 사소통의 어려움, 동기부족이었고, 두번째,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방법의 이해와 관련하여 배란을 파악하여 관찰 기록하는 것, 세번째는 기타였다.

개인적 실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격려하고 사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금욕이 어려운 자를 파악하여 금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자연적 점액 관찰법의 종교적, 윤리적 및 의료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격려하고 부부 공동의 책임성을 인식시키고 평신도 지도자를 지지체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었다.

#### 4) 임신 성공률

임신성공율은 18.1%(530명)이었다. 교구별로는 광주 교구에서 52.8%(99명), 청주교구 37.1%(10명) 순이었다.

Pryper et al.(1989)의 연구에 의하면 영국 옥스포드에서 교육한 대상자 중에는 26명 중 73.1%(19명)가 임신을 성공하였다.

Gomes et al.(1988)연구에 의하면 임신 목적으로 배란기법을 사용하는 32명 중 56.3%(18명)가 임신을 성공하였다. 본 연구대상보다 성공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임신성공 요인 및 점액 관찰법 사용의 정확성과 관련된다고 사료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1985년 10월부터 1992년 9월 사이 한국 가톨릭교회 전국 14개 교구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 또는 병원가족계획실에서 등록, 관찰하고 있는 군과 집단 교육에 참가한 군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행복한 가정운동 정기 총회 및 워크샵 자료 중 본 연구분석 방법에 일치하는 자료만 분류 정리하였다.

연구목적은 자연적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조직, 인력, 재정, 시설 및 교육전략면에서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교육이수자의 특성 및 사업효과면을 파악하여 자연적 가족계획 사업 보급에 기여코저 연구를 시도하였다.

가톨릭 교회의 자연적 가족계획 활동은 1970년 춘천 교구 박 토마 주교가 사목 정책의 하나로 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76년 6월 “한국 행복한 가정 운동” 발족이 주교회에서 인준됨을 계기로하여 본격적으로 각 교구에서 실시하였다. 교육 이수자는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미혼자, 기혼자 및 수도자와 사제로 1986-1991년 사이 연평균 7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활동효과면에서 등록자중 3주기 이상 사용상태를 확실히 파악한 사용자는 61.5%(24,542명)이었다. 연도별로는 48.1%-78.2%였고 교구별로는 28.9%-78.2%로 교구별 차이가 컸다.

사용 포기율과 그 원인은 1986년도 22.7%(1845명)이었고 포기이유는 임신을 원해서 23.4%(431명), 방법의 어려움 30.1%(555명)이었고, 1987년은 7.0%(876명)이었다. 중단 원인은 임신을 원해서가 22.5%(199명), 방법의 어려움 25.8%(229명)이었고, 그리고 흥미를 잃어서가 22.8%(202명)이었다. 피임 실패율은 6년간 총 사용자 중 평균 2.9%(701명)였다. 연도별로는 1.2%-9.8%의 큰 차이를 보였으나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교구별로는 0.1%-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1986년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 실수가 61.1%로 가장 많았고, 이유 불명이 19.7%, 방법이해 못함이 19.2%이었다. 1987년은 개인적 실수가 64.4%로 많았고, 다음이 방법이해 못함이 26.3%, 이유 불명이 9.

3%이었다.

임신 성공율은 1988-1989년 2년간 18.1%(530명)이었다. 교구별로는 광주·교구에서 52.8%(9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 청주 교구가 37.1%(10명)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자연적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정부차원의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가톨릭교회가 인적,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운동을 통해 이 방법을 보급해 온 공로는 매우 지대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 방법을 선택한 군과 앞으로 선택할 군에게 더욱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부부공동의 책임성 및 정확하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배려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2). 교육부년감.
- 교황바로 6세(1993). 인간생명,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 맹광호·조규상(1985). 현대 한국 천주교회와 행복한 가정운동 한국 교회사 논문집(Ⅱ). 서울.
- 맹광호·조규상(1989). 한국에서 빌링스 배란법 이용자들의 윤곽과 그 방법의 효과에 프로필. 대한의학 협회지: 14: 1.
- 송열섭(1992). "가톨릭교회와 생명운동 세미나 자료집을 펴내면서", 가톨릭 교회와 생명운동, 서울, 3-5.
- 두 봉(1992). "인명의 존엄성", 가톨릭교회와 생명운동. 서울 7-10.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1991). 인구정책 30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서울.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 평화 위원회(1992). 제1차 세미나 자료집 "가톨릭 교회와 생명운동". 서울.
- Barbato, M. & Bertolotti, G.(1988) Natural methods for fertility control: a prospective study-first,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48-51.
- Boys, Grace A: Natural Family managing & couple relationship: a nation wide survery 104.
- Dorairaj, K. The modified mucus method in India,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ec., 1991. 2066-2067.
- Frank-Hermann, P., Freundl, G., Baur, S., Bremme, M., Doring, G.K., Godehart, E.A. & Sottong, U. Effectiveness and acceptability of the symptothermal method of natural family planning in German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ec., 1991. 2052-2054.
- Fragstein, M., Flynn, A. & Royston, P. Analysis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natural family planning users in England and Wales, 1984-1985.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1988. 70-77.
- Frater, M. Some characteristics of an Australian of present and past users of natural family planning,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ur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planning in Germany,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ec., 1991. 2052-2054.
- Fragstein, M., Flynn, A. & Royston, P. Analysis of a representative sample of natural family planning users in England and Wales, 1984-1985.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1988. 70-77.
- Frater, M. Some characteristics of an Australian of present and past users of natural family planning,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ur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gress. 1988.
- Gomes, I. & Congdon, D. The natur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ity, 1988. 33, 52-53.
- Gupta & Saxena Natural family planning in India—a cultural compatible and secular option, Health and Child Spacing through Natural Family Planning and family Life Education,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gress. 1988.
- John T. Queenan & Kamran S. moguissi, Natural family planning: looking ahead American J.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1991, Dec.
- Kamlic, R. & Gray, R. Factors related to autonomy and discontinuation of use of natural family planning for women in Liveria and



Zambic,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ec., 1991. 2060-2062.

Kamlic R, Gray R. Lanctot C., nartin N. Cremine R. Weisley R. & Spieler J. Effectiveness & Continuation of NFP Method in Africa International Jederation for Family life promotion Nairoli, Kenya august 1989. 39.

Kimberly Aumasck, Mary Martin, American J., Natural family plianning training issues and strategies for the 1990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Dec. 1991.

Perz, A., Grandi, P. & Grat, R. Analysis of the outcome of 124 pregnancies produced during NFP, *International Journal of Fertilty* 1988. 43-47.

Perez, A., Labbok, M., Barker, D. & Gray, R. Use-dffsctiveness of the ovulation method initiated during postpartum breastfeeding, *Contraception*, 1988. 38(5), 499-508.

Pyper C., Knight J.(1989). A pilot study on teaching natural family manning(NFP) in General practice, oxford. International Feder- ation for family pronotion 1989. 69.

St. Mart R.Kamlic R.Gray R.Lanctot C.Martin M. antensmono. NFP usese in the U.S.A. & In Maunitus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fam- ily life promotion NaiRolic Kenya august, 1989. 40.

Trussell, J. & Grummer-Strawn, L. Further analysis of contraceptive failure of the ovu- lation method, *American Journal of Obstet- rics and Gynecology*, Dec., 1991. 2054-2059.

- Abstract -

## A Study on the Family Planning Program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Its Acceptability's, and Effctivenes

*Park, Shin Ae<sup>1)</sup>*

The natural growth rate of the Korean popu- lation has decreased from 3.0% in 1960 to 1.0% in 1990. This was done with family planning program which was introduced by the govern- ment in 1961. The family planning program fo- cused on birth control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and motivations of contraception. People were simply forced to use the method. Whereas, Natural Contraceptive is a method of family planning based solely on the timing of intercourse with the naturally oc- ccurring physiological manifestation of fertilization and in fertilization during the menstrual cycle. This is the combination of self fertility awareness with periodic abstinence.

Natural family planning(NFP) programs in Korea were first started in the Chun-Chen Dio- cese of catholic church by Bishop Thomas Stewart in 1970 In 1975, the Bishops conference launched the Korea Happy Family Movement in the Catholic Hospital Association, to promote the natural family planning.

An average of 70,000 people including adolescents, college students, unmarried and mar- ried persons, and the clergies were trained during a six-year period (1986-1991). 61.5%(24,542 people) of those who completed 3 cycles during 6 year period(1986-1991) became autonomous users and the range was from 48.1% to 78.2%.

In 1986, 22.7% of NFP individuals who drooped out of the program because of the desire for con-

1) Department of Nursing, Kyung Hee University

ception (23.4%), the difficulty of the method used(25.8%), and the loss of interest(22.8%).

During the six-year period the unplanned pregnancy rate at the NFP was 2.9%. The range of the pregnancy rate was at 1.2-9.8%. The rate was decreased as years passed. The major reason for the failure of contraceptive was error

by the individuals(61.1%).

The percentage of the success of conception was 18.1% of 2,979 for achieving pregnancy. The highest percentage was 58.2% (99 users) in Kwang-Joo diocese and next was 37.1% (10 users) in Chong Joo diocese.